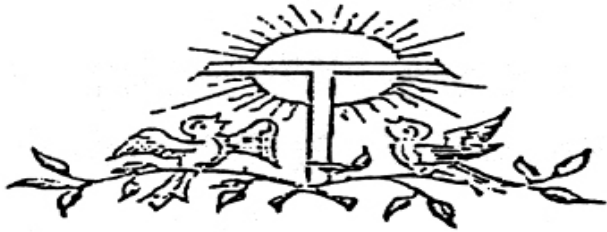


#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1호 2007년 1월 21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참된 겸손**

겸손은 인간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기초는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권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기초는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한 겸손은 불가능하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부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천박하고 무식하며 멸시받을 자로 사람들로 부터 간주될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높임을 받을 때도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사부님은 여기서 참되게 겸손한 이의 자세를 지적 하십니다. 즉, 겸손한 수도자는 멸시를 받을 때나 인정을 받을 때나 자기 자신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부님은 당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교만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젊은이들로부터, 회개 이후부터는 귀족, 추기경, 그리고 교황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만큼, 누구보다도 이 교만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부님은, 겸손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체험과 실질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교만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주의시키시는 것입니다.

-영적 권고 19

## **주님 공현 대축일**

'공현(公顯 epiphania)'이란 '나타내 보여 준다'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세주로 드러나심을 의미한다.

1. 주님 공현은 동방박사의 방문 (칠락묵주 제4락);
2.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빛의 신비 1단);
3.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기적 (빛의 신비 2단)

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세사적 사건들을 기념한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일(마태 2,1-12)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낸다.

### **예수공현 대축일**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대축일. 3세기 동방 교회에서 시작 되었을 때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첫 기적과 요르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 드러난 사건도 더불어 기념하였다. 4세기에 이 축일이 전해진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동방 박사의 방문만을 경축한다.



1월 6일에 공현 축제를 지내나 주의 공현 대축일을 의무적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이며 1월 6일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세례축일을 지낸다.

(2면에 계속)

## (1) 서방 교회의 공현 축일

좁은 의미의 공현에는 현자들의 방문을, 주의 세례 축일에는 주님의 세례를 기린다.

### 공현

1월 6일이 공휴일인 지방에서는 이날 공현 대축일을 지낸다.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축일을 지낸다. 이 축일에는 어떤 특별한 예식이 없다. 현자들의 방문은 공현 축일이 기념하는 이방인 나라들을 상기시킨다.

### 주의 세례

8세기 말 이래 성탄 축일을 본받아 공현 팔부를 여기 저기서 받아들임에 따라 제팔일째 되는 날 주의 세례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13세기 프랑스 전례에서 공현 팔일째 되는 날은 주의 세례 축일이 되었으며, 이 축일을 위한 고유 기도문들도 만들었다. 이 축일은 1960년의 로마 전례력에 도입 되었다. 1969년 이 축일은 1월 6일 다음의 주일에, 공현 축일을 주일에 지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내도록 정하였다.

## (2) 동방에서의 공현 축일

모든 동방 그리스도교에서 공현 축일의 특징을 이루는 예식은, 주의 세례를 기념하여 1월 5일 저녁에 물을 강복하는 예식이다. 5세기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잠기는 것임을 뜻하고자 파스카 성야에 예비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전통을 충실히 지켰었다. 그러나 얼마 후 세례 베푸는 날이 파스카에서 공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요르단 강에 내려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만들기 위해 물을 축성하셨기 때문이다.

후대에 들어 성인 세례가 드물게 되고 아이들 세례는 집에서 베풀게 되었지만 공현축일에 세례수를 강복하는 전통은 보존되었다. 에디오피아에서는 공현 축일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악썸(Axoum)에 모인다. 사제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물 저장소의 물을 강복하며, 모든 이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경하하기 위하여 거기서 목욕을 한다. 그리고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모두 끝나고 연중 시기로 이어진다.

## 성탄 시기의 시작과 끝

성탄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12월 25일의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인 대림절과 12월 25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좁은 의미의 성탄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좁은 의미의 성탄시기도 12월 25일부터 1월 6일 "주의 공현 대축일" 이전까지의 시기와 공현부터 "주의 세례 축일"까지의 공현 시기 두 부분으로 나뉜다.



## 성탄과 공현의 뜻

성탄과 공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쌍둥이 축일로서, 이 두 축일은 의도하는 바가 동일하며 또 동일한 목적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성탄은 로마에서 그 기원을 두는데, 로마의 동지인 12월 25일에 행하여 지던 태양신 숭배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야말로 참 태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4세기부터 예수 성탄을 지내게 되었다.

한편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1월 5일과 6일 사이의 밤에 시간과 영원의 신(神) 에온의 탄생을 경하하는 축제가 있었고 또 이미 2세기에 예수의 세례를 이날 기념하면서 예수가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던 이단이 있었다. 이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러한 이교도의 풍습과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1월 6일 예수의 탄생을 기리다가 곧 이어 예수의 세례와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도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 (3면에 계속)

4세기에 동방 교회의 1월 6일 성탄과 서방 교회의 12월 25일 성탄이 서로 교류되면서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에는 예수 성탄을, 1월 6일에는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드러난 사건들인 세 현인의 방문과 예수의 세례 및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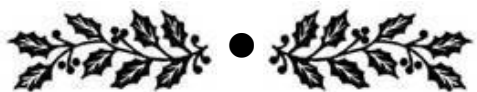
### 예수 세례 축일로 성탄시기가 끝남

주의 공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 세례를 기념하면서 성탄시기를 마친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성탄시기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을 기리면서 예수가 바로 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건들을 함께 기념하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예수 세례를 이 시기에 지내는 것입니다.

### 성탄장식

사정이 이러하다면 성탄 장식을 언제 치우는지 분명하다고 하겠다. 성탄 장식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하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 세례 축일까지 성탄을 지내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지나면 더 이상 성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는 백화점이나 상인들의 상업주의적 사고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로 성탄 축일을 (즉 성탄 대목을) 마감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12월 25일을 시작으로 세례 축일 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신비를 묵상해야 할 것이다. ■



## 사랑하며 사는 세상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그대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숨기고 덮어야 하는  
부끄러움 하나 없는  
그런 맑은 세상  
사람과 사람사이  
달힌문 없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마음의 문을 달더라도  
넋쿨장이 휘돌아 올라가는  
꽃문을 만들어서 누구나가  
그 향기를 맡을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귀한 생명  
사랑받고 살아야 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란거리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가졌다고 주눅 들지 않는  
다같이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열면 하늘 열리고  
내 마음 열면 그대 마음 닿아  
함께 행복해지는 따스한 촛불같은 사랑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대를 사랑 합니다.

- 행복 비타민 中에서 -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6월 총선을 위해 1월 월례회중 선거준비위원회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새 평의회원 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 + 7월에 있을 국가형제회 피정의 장소가 피츠버그로 변경되었습니다.
- + 미국 국가 형제 후보성인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의 기념메달(\$24)이나 열쇠고리(\$20)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서기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료시키는 지향 미사를 봉헌하고 싶으신 분은 1-877-737-9050 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5). 이것은 카푸친 해외 선교사를 돕는데 사용 되겠습니다.

###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6월 총선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를 위해 ...
- + 아프리카 수단의 다푸르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2월 간식담당

조마리아, 한데레사, 김아가다

### 1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신부님 강론  
미사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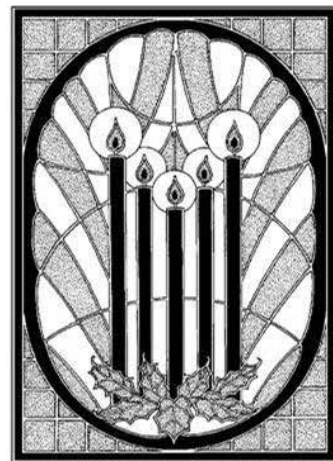
###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2번 태양의 찬가  
봉헌: 5번 작은꽃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마침: 52번 주님 부르먼

제1독서: 이아모스 제2독서: 조로사

###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1월 3일: 김금자 제노베파  
1월 28일: 곽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